

“책을 베개로 삼아 편안히 주무시라”

한국출판학 선구자 故안춘근선생을 기리며

이상보

국민대 국문과 교수

1993년 1월 22일 새벽 5시에 원로서지학자 안춘근님이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영면했다. 고작 67세를 누리고 애곡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던 벗들의 통성을 남겨 놓은 채 이 땅을 떠났다. 모든 신문들은 “을유문화사 주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출판학회, 고서동우회 회장을 역임한 고인은 「한국서지학원론」 「출판개론」 등 서지출판관계 저서를 다수 남겼다”고 적었을 뿐 안박사의 가룩한 업적을 다 신지는 못했다. 그리고 발인은 26일 오전 9시였으며 장지인 경기도 강화의 상도제일교회묘지에 모셨다.

그런데 나는 지난 1월초에 인도여행을 떠났다가 27일에야 귀국했으므로 형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영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니 유명을 달리한 마당에 사죄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다. 지난 연말에 큰 수술을 받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담담한 얼굴로 오히려 나를 위로하더니 영월로 영부인과 함께 정양을 떠났던 정성도 부질없던 일이었던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요 무정한 인연이며 냉엄한 섭리라 할 것이다.

을유문화사에서 23년간 ‘출판의 길’ 걸어

임은 1926년 음력 7월 27일에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남애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호를 남애(南淮)로 불렀으니 이른바 “머리를 고향 언덕으로 돌리는 첫마음”(首邱初心)을 지니며 살고자 했던 것이리라. 38선이 가로막혀 지금껏 가볼 수 없는 고향 땅 남애리를 늘 그리워하며 자랑하던 모습을 이제는 눈을 감고서야 보게 되다니 어이없구나.

형은 일찍이 경기사범을 마치고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6·25동란으로 통역장교가 되어 은성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육군 교육연감 편찬담당관으로 1955년에 예편되자 바로 을유문화사에 들어갔으니 78년 6월에 이사 겸 출판주간을 사임할 때까지 무려 23년간이나 출판인으로 외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안춘근과 을유는 책장의 앞뒤처럼 뿔 수 없는 관계로 알려졌다. 특히 을유문고를 기획하고 펴낼 때 안주간의 엄정한 저자선택과 저서심사는 시중의 종이값을 올려 놓았었다.

형은 을유의 출판주간으로 있으면서 성균관대를 마치고, 1958년에는 서울신문학원 신문과를 수료하자 곧바로 출판학 강사가 되었다. 그런 뒤로는 이화여대 대학원의 도서관학과를 비롯하여 중앙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故 안춘근씨.

경희대, 서울대, 명지대 등에서 출판·도서분야의 강의를 맡아왔으니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왔었다.

특히 70년초에 한국일보에서 모범장서가로 대서특필해놓은 안선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찾아가서 억지로 명지대 국문과에서 서지학개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안형과 나의 만남은 그때부터 바늘과 실처럼 이어졌고 여행과 등산, 고서점과 펜클럽 출판학회와 고서동우회 등의 모든 행로에서 빛과 그림자가 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내 신세가 마치 짝 잃은 외기러기처럼 되었으니 먼저 간 안형을 원망해야 할지 남아 있는 나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 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다시금 안박사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그리워하고 기리는 도리 밖에 없다.

저서 30여권 통해 왕성한 필력 자랑

첫째로 형은 한국 출판학계의 큰별이었다. 1969년에 한국출판학회를 발족하여 초대회장이 되어 20여년간을 이끌었다. 그동안에 학회지 「출판학연구」를 해마다 펴내고 출판학회상을 시상하며 「양서의 세계」 「출판개론」 「출판사화학」 「한국출판문화론」 「잡지출판론」 등 10여 종의 저서를 간행했다. 그런 중에도 1983년에는 일본의 출판학자들을 불러들여 국제출판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서 제1회 국제출판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한·중·일의 3국을 오고 가며 해마다 국제간의 출판학술교류를 추진시켜 온 공적은 길이 남을 유업이다. 이렇듯 성장시킨 출판학회를 89년에 수제자인 윤형두회장(범우사 사장, 중앙대 강사)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돕다가

떠났으니 우리는 위대한 출판인을 잃은 것이다.

둘째로 형은 철저한 서지학자로서 한국서지학계의 대들보였다. 1970년에 한국서지학회를 창설하여 간사가 되어 회무를 이끌면서 「한국서지학」 「한국판본학」 「한국불교서지학」 「한국불교서지고」(일어판) 등 10여종의 저서를 남겼으니 어찌 한국의 자랑거리가 아니겠는가?

셋째로 형은 특출한 장서가요 고서감정인이요, 애서가였다. 그러기에 1978년에 제1회 장서가상(월간 동서사 제정)을 받았다. 79년에는 남애장서 1만권(고서 7천권, 신서 3천권)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넘겨주었다.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몇 억원의 귀보를 새로 발족한 이 나라의 정신문화원 도서관에 기증하여 남애문고를 설치시킨 것은 오로지 수서가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사례금으로 받은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집을 지었으며 서재와 지하실의 서고를 또다시 귀중본과 희귀본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떠났다. 애초부터 안박사는 한 우물만을 판 외곬이었다. 상도동 옛집은 단층 기와집이었는데 언젠가 큰 비가 내렸을 적에는 지붕이 새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안방과 건넌방, 대청마루와 별채에 가득 쌓아 둔 책들을 지키노라 온식구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가 찾아갔던 때도 며칠간은 포서 하기에 내외분이 지쳐있었다. 바로 그 집자리에 양옥으로 2층을 짓고 나서 이제는 책이 빗물에 젖을 걱정이 없어서 좋다고 웃던 얼굴이 생각난다. 82년에는 한국고서동우회를 수서광들이 모여 만들고 안도사(이 회에서는 안박사를 그렇게 불렀다)를 초대회장으로 모셨다. 동서고금의 희귀본이나 옛책방의 먼지 낀 두루마리까지도 찾아다니는 수서가들을 한데 묶어 월례회를 가지고 「고서연구」라는 동인지를 해마다 냈으므로 학문적 수준으로 격상시켰으나 고서값을 올려놓았다는 편견도 받았다.

그러나 안도사는 우리나라 옛책이 제값을 받게 되어야만 한다고 의연했다. 가끔 형을 따라 고서점에 가면 그집 주인은 안박사가 집어든 책이면 무조건 귀중본으로 알고 비싸게 불렀다.

그래서 나는 안형과 함께 갔을 적에는 아예 책을 살 생각도 접어 둔 채 책고르기를 배울 뿐이었다. 이 모임도 한국고서연구회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자 후계자로 내게 떠맡기고

고문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밀돌 구실을 했다.

넷째로 형은 저술가이며 교양인이었다. 「독서의 지식」 「한국의 자랑 과연 그럴만한가」 등 10여종의 교양서를 지음으로써 국민교양에 이바지한 바가 컸으며 병석에서도 원고집필을 계속했던 것이다.

다섯째로 형은 수필가요 편집가로서 국제펜클럽의 이사 등 임원직을 맡았다. 수필집으로는 「살구나무의 시연」 「남애영도기」 등 5종의 저서를 남겼으며 한국기독교수필문학회에도 관여해서 그 기관지인 「기독교수필」 창간호에 남긴 수필 2편이 결국 절필(마지막 원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형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결코 편협한 종교인이 아니었다.

한국 서지학계 키운 ‘대부’로 남아

여섯째로 형은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었다. 20년남짓 함께 올랐던 산들은 남한 각처에 널려 있고, 만년에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악산을 오르내렸다. 마침내 85년부터는 한국에서가산악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앞장섰으니 김병철, 윤형두, 여승구, 박세록 등 호서가들이 언제나 동행했었다.

내가 흥은동으로 이사를 온 뒤로는 등산대열에서 탈락하자 “오래 살려면 함께 등산을 계속하자”고 충고하더니 그래 오래 살아야 할 형은 먼저 가고, 먼저 죽어야 할 내가 살아 있으니 이 무슨 섭리인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도 책을 모으고 정리하다 보니 모를 것이 많아 안박사를 불러 그 책들을 감정하고 평가해 달라고 불려간 것이라 여겨진다.

조국이 광복되자 우리 말 글이 되살아나고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책을 만들고, 짓고, 모으고, 값을 높혀 놓는 일에만 평생을 바쳐온 안박사의 업적은 한국출판문화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난번 형의 회갑을 기해 「고서연구」 특집호를 꾸밀 때에 그 책머리에 “枕書高臥”(침서고와 : 책을 베고 편히 누우시오)라고 내 줄필로 위로했었다. 그런데 이제 형을 우리 곁에서 천당으로 보내는 마당에서 다시금 비는 말씀도 “책을 베개로 삼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되풀이할 수 밖에 없구나!

아! 슬프도다 형이여! 안춘근박사의 영령이여!